

농촌 주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마을 공동식사(급식) 정책 방안

박 경 철

충남연구원 농촌농업연구부 책임연구원, kcpark@cni.re.kr

농촌마을 공동식사(급식, 이하 공동급식으로 통일함)는 마을 주민의 건강 증진, 공동체 회복, 여성농민 가사 부담 경감, 식비·난방비 절약 등 많은 장점을 지니고 있음. 이에 마을 공동급식 실시 현황, 정책 동향, 사례 분석 등을 토대로 충청남도 농촌마을 공동급식 활성화를 위한 개선 방안을 제시함

CONTENTS

1. 농촌마을 공동급식의 필요성
2. 농촌마을 공동급식 실시 현황
3. 설문 및 사례 분석
4. 정책 제언

요 약

- ◀ 마을 공동급식은 첫째 외부의 도움 없이 마을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식사 개념 이고, 둘째 현재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마을 공동급식 지원 사업을 말함
- ◀ 마을 공동급식 사업은 충남도뿐만 아니라 타 지자체에서도 주민들의 호응이 좋아지고 있으며, 사업의 내용도 단순 인건비 지원에서 부식비 지원까지 확대되고 있음
- ◀ 본 연구에서는 농촌마을 공동급식에 관한 정책 동향 분석, 사례조사, 시범사업 실시 등을 통해 충청남도 농촌마을 공동급식 확대를 위한 정책 개선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함
- ◀ 첫째, 마을 공동급식은 농촌마을의 과소·고령화시대에 주민들의 공동체 회복과 건강 증진을 위해 적극 확대해 나가야 함
- ◀ 둘째, 현재 지자체 지원으로 실시중인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 사업 또한 양적인 확대와 아울러 질적인 발전이 필요하며 인건비와 부식비를 지원하고 지원 시기도 늘려야 함
- ◀ 셋째, 농촌 마을회관 대부분이 경로당으로 변화된 상황에서 마을 공동급식을 지자체의 로컬푸드와 공공급식 연계 추진
- ◀ 넷째, 농촌마을 주민들의 공동급식 문제에 대해 중앙 및 지방정부의 지원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심도 필요

01

농촌마을 공동급식의 필요성

- 예로부터 우리나라 농촌마을은 상부상조의 전통과 향음문화의 미풍양속이 있어왔음
 - 즉, 개별 농가 혹은 마을단위로 치러지는 잔치와 기념행사, 세시풍속, 상례 등에서 마을주민이 함께 음식을 만들어 나눠먹음
- 하지만 도시화와 산업화로 인해 농촌인구가 줄어들면서 전통적인 관혼상제와 마을의례, 마을 단위 향음문화가 점점 사라져 마을 공동체의 상실 문제가 대두됨
 - 마을 주민들이 함께 식사하는 전통이 사라지면서 전통적으로 이어온 마을 공동체 활동과 주민 간의 상호 돌봄 문화도 점차 사라지게 됨
 - 반면 1980~90년대 마을회관이 들어서면서 마을 주민들이 함께 식사하는 시간이 많아지고 공동식사의 중요성이 다시 주목을 받기 시작함
- 이러한 배경에서 농촌마을 공동식사의 긍정적인 효과로 인해 충남도는 2013년부터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 사업>을 시작함
 - 이 사업은 농번기에 여성의 일손을 덜어주기 위해 약 한 달 동안 농촌마을에 마을 공동급식을 지원해 마을 주민이 함께 식사를 할 수 있게 하는 사업
 - 마을회관을 중심으로 한 공동급식 사업은 여성의 가사 노동 경감, 마을 내 친목과 공동체성 향상, 마을 어르신에 대한 공경심 제고, 취사와 관련한 비용 절감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

02

농촌마을 공동급식 실시 현황

1. 충남도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 사업> 실시 현황

- 연도별 사업량을 보면 2013년 150개소(마을)에서 시작해 이후 줄곧 변함이 없다가 2017년에 33개 마을이 추가되어 183개 마을로 확대됨(하지만 2018년에는 다시 150개 마을로 감소함)

[표 1] 농촌마을 공동급식 연도별 지원 현황(2013-17년도)

(단위 : 개소, 천 원)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사업량	개소 수	150	150	150	150	150(+33)
사업비	계	157,000	157,000	180,000	225,000	225,000 (+49,500)
	도 비	28,000	28,000	36,000	67,500	67,500 (+14,850)
	사·군비	129,000	129,000	144,000	157,500	157,500 (+34,650)

*자료: 충남도청 농정과 내부자료

- 충남도청 농정과 내부 자료에 따르면, 2017년에 실시된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 사업> 183개소 중 가장 많은 사업을 실시한 지역은 부여군으로 나타남
 - 2017년 기준 부여군이 36개소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아산시가 30개소, 홍성군 23개소, 청양군 15개소 순으로 나타남
 - 반면, 천안시, 공주시, 보령시 등은 10개소, 당진시는 7개소, 서산시는 2개소이고 논산시와 계룡시는 실시하는 마을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표 2]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 현황(2017년도)

(단위 : 개소, 천 원)

시 · 군	당 초				증 가 분(추경)			
	사업량 (개소)	소요 예산액(천원)			사업량 (개소)	소요 예산액(천원)		
		계	도비	사·군비		계	도비	사·군비
합계	150	225,000	67,500	157,500	33	49,500	14,850	34,650
천안시	10	15,000	4,500	10,500				
공주시	10	15,000	4,500	10,500				
보령시	10	15,000	4,500	10,500				
아산시	30	45,000	13,500	31,500				
서산시	2	3,000	900	2,100				
당진시	5	7,500	2,250	5,250	2	3,000	900	2,100
금산군	10	15,000	4,500	10,500				
부여군	20	30,000	9,000	21,000	16	24,000	7,200	16,800
서천군	3	4,500	1,350	3,150	7	10,500	3,150	7,350
청양군	10	5,000	4,500	10,500	5	7,500	2,250	5,250
홍성군	20	30,000	9,000	21,000	3	4,500	1,350	3,150
예산군	10	15,000	4,500	10,500		-		
태안군	10	15,000	4,500	10,500		-		

*주: 지원 사업 현황과 실제 집행 내역과는 다를 수가 있음.

*자료: 충남도청 농정과 내부자료

2. 타 지자체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 사업> 현황

- 전남도는 2017년 사업 대상 마을은 1,012개였고, 예산액은 20억 2,400만 원에 달함
 - 마을당 사업비는 약 200만 원이었고 공동급식 기간은 24일 이내로 한정함. 타 광역 지자체의 실시 규모가 150~200개소인 것을 감안하면 전남도는 규모 면에서는 타 지자체를 압도한다고 할 수 있음
 - 전북도의 경우, 2017년 기준 사업 대상 마을 수는 160개이고 예산액은 3억 8,400만 원으로 전남도의 약 1/7 규모였음. 하지만 마을당 사업비는 전남도보다 많은 240만 원이었고 공동급식 기간도 전남도보다 긴 40일 이내였음

[표 3] 전남, 전북 마을공동급식 사업 현황(2017)

	지원 마을 수	예산액	마을당 사업비	공동급식기간
전남	1,012개	20억 2,400만원	200만원	24일 이내
전북	160개	3억 8,400만원	240만원	40일 이내

*자료: 이수미(2017).

- 2018년 기준, 마을 공동급식과 관련한 조례를 제정한 지자체는 8개 시도에서 22개 기초지자체로 나타남
 - 충북도가 괴산군, 단양군 등 총 7개 기초지자체에서 조례가 제정되어 가장 많았음
 - 다음으로 전남도는 6개 지자체에서, 전북도는 4개 기초지자체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나타남

[표 4] 마을 공동급식 관련 조례 제정 현황(2018년 6월 기준)

지역(개수)	해당 지자체(년도)	지역	해당 지자체(년도)
경기(1)	여주시(2016)	충북(7)	괴산군(2017), 단양군(2016), 영동군(2015), 옥천군(2017), 제천시(2016), 음성군(2016), 괴산군((2017)
강원(1)	화천군(2016)	전남(6)	순천시(2014), 고흥군(2015), 곡성군(2015), 나주시(2014), 영암군(2014), 함평군(2018)
경남(1)	남해군(2015)	전북(4)	김제시(2013), 완주군(2016), 무주군(2018), 임실군(2017)
충남(1)	홍성군(2017)	인천시(1)	강화군(2015)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주: 괄호 안의 년도는 조례 제정 공포일, 일부 개정, 개정일을 나타내기 때문에 조례 제정 순서와는 다름

03 설문 및 사례 분석

1. 농촌마을 공동급식에 관한 설문조사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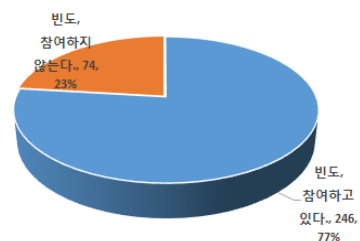
- 충남지역 농촌마을 공동급식 실태, 개선 방안 등을 조사함
 - 조사 대상 : 충남도 거주 농촌마을 주민 320명
 - 조사 기간: 2018년 4월 15일~5월 15일(1개월)
 - 조사 내용: 1)마을 공동급식 실태 및 의견 2)마을 공동급식 지원 사업에 대한 의견 등
 - 조사 방법: 전문 리서치업체 조사 의뢰(일대일 면접 조사)

2. 주요 조사 결과

- 조사 대상자의 마을에서 평소 주민들 간 공동취사와 공동급식을 하고 있는지에 관한 질문에 전체 320명의 응답자 전체(100%)가 실시한다고 응답함
 - 즉, 아직까지 모든 마을에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주민 간 공동급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마을 내 공동취사와 공동급식에 참여하고 있는지에 관한 질문에 '참여하고 있다.'는 응답이 246명으로 전체 76.9%를 차지해 대부분의 마을 주민은 마을회관에서 실시하는 공동급식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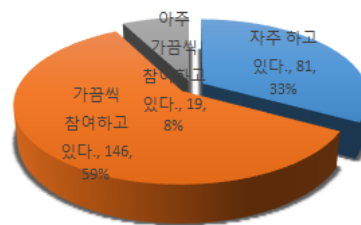
[표 5] 마을 내 공동취사와 공동급식 참여 여부

항목	빈도	%
참여하고 있다.	246	76.9
참여하지 않는다.	74	23.1
전체	320	100.0



[표 6] 마을 내 공동취사와 공동급식 참여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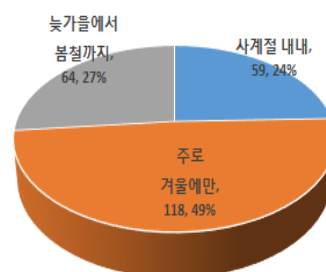
항목	빈도	%
자주 참여하고 있다.	81	32.9
가끔씩 참여하고 있다.	146	59.3
아주 가끔씩 참여하고 있다.	19	7.7
전체	246	100.0



- 마을 공동급식에 참여하는 경우 주로 언제 많이 참여하는지 살펴본 결과, ‘주로 겨울에만’ 참여한다는 응답이 118명으로 약 절반인 49.0%를 차지함
 - 추수가 끝나고 다음해 영농철이 시작되기 전인 ‘늦가을에서 봄철까지’라는 응답은 64명, 26.6%를 차지함
 - 반면, ‘사계절 내내’ 참여한다는 응답도 24.5%를 차지함

[표 7] 마을 내 공동취사와 공동급식 참여 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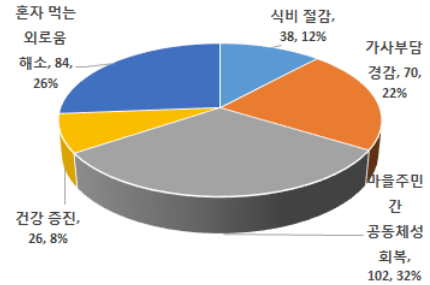
항목	빈도	%
사계절 내내	59	24.5
주로 겨울에만	118	49.0
늦가을에서 봄철까지	64	26.6
전체	241	100.0



- 마을 공동취사와 공동급식의 좋은 점에 대해 ‘마을 주민 간 공동체성 회복’이라는 응답자 102명, 31.9%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마을 주민들이 어울려 함께 식사를 하는 자체만으로도 가치 있다고 평가한 결과라고 할 수 있음
 - 두 번째 좋은 점은 ‘혼자 먹는 외로움 해소’가 84명, 26.3%를 차지했고, 세 번째 좋은 점은 ‘가사부담 경감’으로 70명, 21.9%인 것으로 나타남

[표 8] 마을 내 공동취사와 공동급식의 좋은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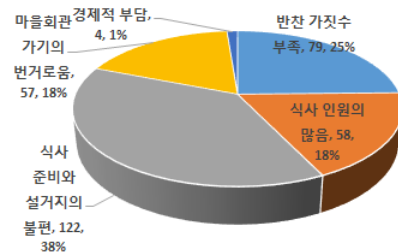
항목	빈도	%
식비 절감	38	11.9
가사부담 경감	70	21.9
마을주민 간 공동체성 회복	102	31.9
건강 증진	26	8.1
혼자 먹는 외로움 해소	84	26.3
전체	320	100.0



- 마을 공동급식의 불편한 점으로는 ‘식사 준비와 설거지’라는 응답이 122명, 38.1%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두 번째 불편함으로는 ‘반찬 가짓수 부족’으로 79명, 24.7%를 차지함. 현재 지자체에서 마을 공동급식 사업으로 취사 도우미를 지원하는 것도 식사 준비와 치우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됨
 - 세 번째와 네 번째 불편함은 각각 ‘식사인원의 많음’과 ‘마을회관 가기의 번거로움’으로 비슷하게 나타남

[표 9] 마을 내 공동취사와 공동급식의 불편한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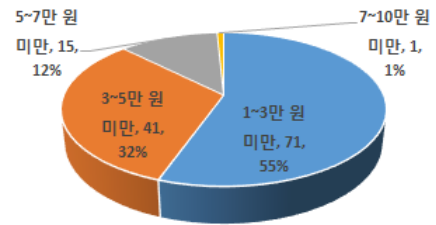
항목	빈도	%
반찬 가짓수 부족	79	24.7
식사 인원의 많음	58	18.1
식사 준비와 설거지의 불편	122	38.1
마을회관 가기의 번거로움	57	17.8
경제적 부담	4	1.3
전체	320	100.0



- 마을 주민이 공동급식의 식부자재 구입을 위한 부담금을 내는 경우 그 액수는 ‘1~3만 원 미만’이 71명, 55.5%로 가장 많았음
 - 다음으로 ‘3~5만 원 미만’이 41명, 32.0%를 차지함. 나머지 5만 원 이상 금액은 어르신들의 경제적 부담으로 그리 많지 않았음
 - 현재는 마을 공동급식 부담금을 내지 않고 있지만 앞으로 부담금을 낼 의향이 있는 경우 그 액수는 2~3만 원이 40명, 39.2%로 가장 많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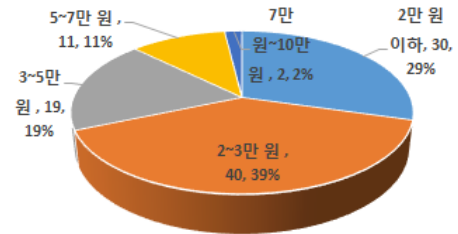
[표 10] 마을 내 공동취사와 공동급식의 개인 부담 금액(1년 기준)

항목	빈도	%
1~3만 원 미만	71	55.5
3~5만 원 미만	41	32.0
5~7만 원 미만	15	11.7
7~10만 원 미만	1	0.8
전체	128	100.0



[표 11] 마을 내 공동취사와 공동급식을 위한 개인 부담액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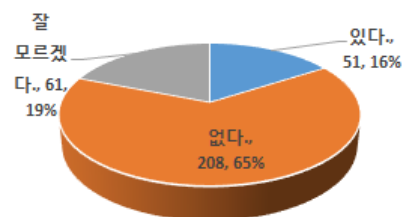
항목	빈도	%
2만 원 이하	30	29.4
2~3만 원	40	39.2
3~5만 원	19	18.6
5~7만 원	11	10.8
7만 원~10만 원	2	2.0
전체	102	100.0



- 현재 지자체에서 일부 마을에 실시하고 있는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 사업>에 대한 주민의 인지 여부 조사 결과 ‘들어본 적이 없다’는 응답이 208명, 65.0%로 다소 높게 나타남
 - 반면, ‘들어본 적이 있다’는 응답은 51명, 15.9%에 불과함.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61명, 19.1%이었음
 - 전체적으로 농촌 주민들은 지자체에서 현재 실시하는 마을 공동급식 지원 사업에 대해 모르고 있는 걸로 나타남

[표 12] 마을 공동급식 지원 사업 인지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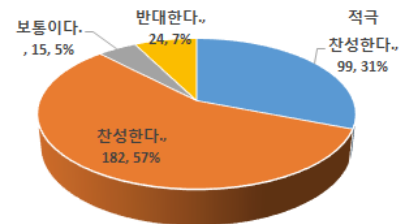
항목	빈도	%
있다.	51	15.9
없다.	208	65.0
잘 모르겠다.	61	19.1
전체	320	100.0



- 마을 공동급식 지원 사업에 대해 농촌 주민들의 생각을 알아본 결과, ‘찬성한다’가 182명, 56.9%로 과반 이상을 나타냈고, ‘적극 찬성한다’는 응답은 99명, 30.9%인 것으로 나타남
 - 반면, ‘반대한다’는 의견은 24명으로 7.5%에 불과함. 마을 공동급식 지원 사업에 대해 농촌 주민의 지지도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음

[표 13] 마을 공동급식 지원 사업 찬반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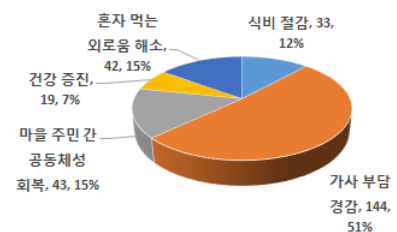
항목	빈도	%
적극 찬성한다.	99	30.9
찬성한다.	182	56.9
보통이다.	15	4.7
반대한다.	24	7.5
전체	320	100.0



- 마을 공동급식에 찬성하는 이유로는 ‘가사 부담 경감’이 144명, 51.2%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이는 마을 공동급식 지원 사업이 농번기에 여성농민의 가사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본래의 취지와 부합한다고 할 수 있음
 - 다음으로 ‘마을 주민 간 공동체성 회복’과 ‘혼자 먹는 외로움 해소’가 각각 43명, 15.3%, 42명, 14.9%로 비슷하게 나타남

[표 14] 마을 공동급식 지원 사업 찬성 이유

항목	빈도	%
식비 절감	33	11.7
가사 부담 경감	144	51.2
마을 주민 간 공동체성 회복	43	15.3
건강 증진	19	6.8
혼자 먹는 외로움 해소	42	14.9
전체	281	100.0



3. 실시 사례 분석

- 마을 공동급식을 실시하는 충남도내 농촌마을 세 곳을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음
 - 첫째, 겨울철(12월-이듬해 3월) 이후 마을 공동급식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점임. 조사에 따르면 겨울철 마을 공동급식은 세 마을에서 비교적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있었지만 이후 공동급식 시기에는 마을마다 지자체 지원 사업에 따라 달랐음
 - 둘째, 마을 공동급식이 예상보다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있었는데 이러한 배경에는 마을 지도자의 헌신적인 노력이 뒷받침되고 있기에 가능한 일임
 - 셋째, 마을 주민들에게는 공동급식 사업에서 인건비보다는 부식비 지원이 필요함. 또한 지자체에서 적은 액수라도 몇 달간 지속적으로 지원하면 마을 주민들은 그 지원금으로 마을 공동급식을 유지해 나갈 수 있음

[표 15] 마을 공동급식 사례 마을 조사 결과 요약

구분	청양군 정탁마을	청양군 가파마을	홍성군 원형산마을
마을 자체 공동급식	12월-이듬해 3월	12월-이듬해 3월	12월-이듬해 4월
마을공동급식 지원 사업	2017년 5월 한 차례 진행	마을 공동생활제 실시 (독거노인-한 달 10차례씩 10개월 간 공동식사 실시)	2016년 이후 계속 실시
주요 담당자 (책임자)	마을 이장, 부녀회장, 마을회관 총무	마을 이장, 노인 회장	마을 이장, 노인 회장
공동급식 특징	주로 겨울철에 진행하고 3월 이후에는 비용이 없어 거의 진행을 못함.	겨울철에는 거의 매일 진행하고 이후에는 한 달에 10일 정도 진행함. 공동생활제는 독거노인을 위한 사업이나 마을 주민들도 함께 하고 있음.	주로 겨울철에 진행하고 있고 최근 몇 년 동안은 지자체의 지원을 받아 농번기에도 진행하고 있음. 이후에는 가끔씩 진행하고 있음.
마을의 강점	마을회관 총무가 오랫동안 마을 공동급식 장부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옴 최근 노인복지 업무 경험이 있는 부녀회장이 마을 공동급식을 관리함	마을 이장이 공동식사 전반에 대해 책임을 지고 관리하고 있음.	마을 이장이 오랜 동안 마을 어르신들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있음. 마을 공동식사에서 소외되는 어르신도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함.
실시상의 어려움	마을 공동식사를 하고 싶어도 마을 자금이 없어 실시하지 못함.	마을 공동생활제의 원래 목적이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하나 실시 상에서는 독거노인만을 대상으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현재는 타 마을보다 풍족하게 실시하고 있으나 축분 냄새 등으로 인해 마을 내 귀농·귀촌인이 없어 지속적 유지 어려움
공동급식 사업에 대한 평가	농번기에도 필요하지만 부식비는 마을 자체 조달해야하기 때문에 부담을 느낌 인건비 지원보다는 부식비 지원이 더 바람직함.	-	농번기 한 달 지원이 짧음. 인건비 지원보다는 부식비 지원이 더 바람직함.
주민들 희망사항	가급적 4계절 내내 부식비 명목으로 어느 정도 지원 바람. 인건비 지원보다는 부식비 지원이 더 바람직함.	급식비와 인건비 지원이 지속되길 바람.	한 달 동안의 급식 지원 사업 기간을 더 연장해주길 바람. 또한 가급적이면 4계절 동안 지원해주길 바람.

04 정책 제언

- 농촌 어르신의 건강 증진, 마을 주민들 간 친목 활동 도모, 홀몸 어르신 고립감 해소, 여성 농민의 가사 부담 경감 등 여러 장점이 있는 농촌마을 공동급식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음의 정책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첫째, 농촌마을 공동급식을 중요 정책 대상으로 설정
 - 농촌마을 공동급식은 농촌여성의 가사 부담뿐만 아니라 농촌 어르신의 건강 증진, 공동체성 강화, 고립감 해소 등 긍정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이 사업을 중시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식생활 개선·건강개선 사업, 경로당 무료급식, 취약계층 급식비 지원 등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여러 정책 지원이 필요함
- 둘째,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 사업의 제도 개선
 - 마을 공동급식 사업 시기를 확대하고, 마을 공동급식을 위한 인건비 지원뿐만 아니라 부식비도 함께 지원하기 위해 마을 공동급식 지원 사업의 예산 확대가 필요함
- 셋째, 농촌마을 공동급식을 중요 복지사업으로 설정
 - 마을 공동급식 사업은 여성농민의 농업노동력 절감보다는 농촌 노인복지 차원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서 농정예산뿐만 아니라 복지예산 확충이 필요하고 지자체와 민간단체 간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함
- 넷째, 마을 공동급식을 로컬푸드-공공급식 영역으로 확대
 - 마을급식은 점차 로컬푸드와 공공급식으로 확대해나가야 할 것임. 이를 위해 향후 학교(공공)급식센터의 마을별 부식재료 공급, 마을 규모에 따른 부식비(쿠폰) 지원, 거점 공공급식센터의 부식재료 및 조리음식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마을 공동급식 확대를 위한 제도 마련 및 시민사회 관심 필요

- 마을공동급식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이를 지원해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무엇보다 필요함. 이를 위해 충남도와 각 시군은 지역의 여건에 따라 ‘마을 공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가칭)해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임
- 지자체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에서도 연로한 농촌 어르신, 특히 홀몸 어르신의 식생활과 건강, 그리고 공동체 상실 등의 문제에 관심을 갖는 노력이 필요함

박 경 철

충남연구원 농촌농업연구부 책임연구원
041-840-1206, kcpark@cni.re.kr

※ 본 글은 충남연구원 2018년 전략과제 “충남도 농촌마을 공동취사, 공동급식 실태와 개선 방안”을 현 시점에 맞게 요약, 보완한 것임.

- 김동원 · 이병훈 · 김광선 · 박혜진. 2012. 농촌지역 마을회관 이용 실태 조사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박정철. 2017. 충남도 농민인권 실태 및 정책과제. 충남연구원 전략과제
- 박태신. 2018. 청양군 로컬푸드-학교급식(공공급식)-마을 공공급식 연계 방안(미발표 자료)
- 서천군. 2018. 서천군 노인복지 향상을 위한 5개년 종합발전계획 수립
- 윤정미. 2014.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 방안. 충남연구원 현안과제.
- 이계임 · 김상효 · 김부영. 2018. 정부의 취약계층 농식품 지원체계 개선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이병훈 · 김동원 · 박혜진 · 윤영석. 2012. “농촌지역 마을회관 이용 활용도와 만족도에 관한 결정 요인 분석”. <농촌계획> 18권 4호: 27-34.
- 이수미. 2017.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사업 현황과 개선방안”.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제 271호.
- 충청남도. 2016. 충청남도 식생활교육 기본 계획 수립 용역.
- 허남혁. 2018. 공공급식 정책의 방향과 과제(미발표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kosis.kr/>